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6. 21.(수)

## 금일 69건 경매 유예·정지 협조요청 의결, 6월 28일 전체위 첫 전세사기피해자 의결 예정

- 피해자 결정문으로 기존 HUG를 통한 금융, 주거지원 등 이용가능토록 편의 제고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제3차 분과위원회(3분과)를 개최하여 인천·서울·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·정지 신청건 총 69건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
  -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(6월 1일)와 분과위원회(6월 7일, 14일)를 차례로 개최하여 인천·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·공매 유예등 신청건 중 총 546건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 바 있다.
  -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즉시 각 지방법원, 세무서에 경·공매 유예 등 협조를 요청하여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.
- 현재까지 시·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,952건(6월 16일 기준, 사전접수 포함)으로,
  -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6월 28일(수) 개최될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특별법 시행 후 첫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안건을 심의·의결할 예정이다.
  - 아울러,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결정문만으로 기존 금융,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주택정책관<br>임대차지원팀 | 책임자 | 팀 장 나민희 (044-201-4979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김동환 (044-201-498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주무관 송현종 (044-201-4982) |